



새소리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는 조류관찰 야전군

글 쓴 이우신 인터뷰

이우신(48) 씨는 '새박사'로 불린다. 어린 시절부터 '새'에 남다른 관심이 있었다.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말을 듣고 그 흔한 '까치'에 호기심을 가졌고, 부산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낙동강 하구의 철새들과 을숙도 주변의 기러기들을 친구처럼 여겼다.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광릉수목원을 내집처럼 다니다가 크낙새를 비롯한 큰오색딱따구리의 드러밍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아예 조류생태 연구에 전념하기로 작정했다.

'조류 생태학'은 '현지조사'를 필수로 하기 때문에 그가 자연 속에서 얻은 추억담도 적지 않다.

"대부분의 새들이 끊임없이 먹는 일을 반복하는데 밤새 먹이를 먹지 못하니까 일찍 활동을 시작합니다. 새 연구자들이 새벽에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요. 유학 시절 위도가 높은 북해도에서 조사연구를 할 때는 새벽 3시 반부터 관찰을 시작해야 했는데 잠자리 털고 일어나는 일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은 산에서 불곰을 만나 죽을 뻔한 적도 있지요."

하루이틀로 끝날 일이면 좋으려면 새를 관찰하는 일은 결코 간단치가 않다. 추운 새벽에 혼자 조사연구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외로움까지 감당해야 한다. 치악산에 갔을 때는 지저귀는 새만 바라보며 걷다가 하천 웅덩이에 빠졌던 적도 있는데 온몸이 젖은 상태에서 추위에 떨던 공포스런 기억도 이제는 의미 있는 추억으로 변했다.

이번 책은 유희상 씨의 새소리 녹음을 듣고 썼다. 사람마다 다르게 들을 수 있는 새소리를 글로 표현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 가령 번식기의 삐꾸기울음소리를 기록한다고 해보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삐꾸삐꾸'로 표현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갓꼬갓꼬', 영어권 사람들은 '쿠쿠-쿠쿠'로 표현한다. 이렇게 듣는 이에 따라 다르게 기록될 수 있는 새소

리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옮기는 게 관건이었다.

"발음을 표현할 때 영국이나 미국, 특히 일본에서 표현하는 발음을 참고하였고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도감의 발음법을 활용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연구실 대학원생들도 함께 들으면서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씨는 시각자료 겸 청각자료를 모두 제공하게 된 이 책에서 전문용어를 쉽게 설명하는 데도 역점을 뒀다. 본래 "어린이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쉽게 풀어쓰자"는 의도로 기획된 책이라 간단하고 쉬운 영문설명도 덧붙였다. 또 탐조에 활용하기 좋은 분포도를 만들었는데 가까운 곳에서 멀리 탐조 나가는 것을 가정하면서 마을과 숲에서 산, 계곡, 들, 습지와 바다 순으로 본문을 나눴다.

이우신 씨는 이제 소리만으로 새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했다. 수컷이 암컷을 유혹하는 소리는 작고 복잡하며, 어미새가 생활력이 없는 새끼에게 먹이를 주려고 신호를 보내는 소리는 이와는 또 다르다. 이처럼 새들의 감정표현도 사람의 감정처럼 제각기 다른데 그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그 마음을 읽으며 '새'와 '환경'에 각별한 관심을 갖길 원한다.

"1940년대 이전만 해도 우리 동요에 나오는 따오기가 한국에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농약으로 인한 오염, 밀렵 등으로 인해서 이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겨울 철새인 재두루미 또한 우리나라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일본으로 이동하는 추세거든요. 이들이 장거리를 이동할 때 우리나라를 징검다리 삼아 지나치는데 중간 휴식지나 다름없는 우리나라 환경을 보존하려는 노력들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는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다. 머지않아 1년 동안 미국에서 수집한 새로운 정보를 토대로 연구결과를 내용을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조류 관련 교과서 집필을 위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새들과 조우할 계획을 갖고 있다. ■